

원도심 상권의 이용자행태와 소비지출액에 대한 실증 분석

— 아산시를 중심으로 —

임 준 홍*

Empirical Testing on User Behavior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n Downtown
Commercial Supremacy; Focused on Asan City

Im, Jun Hong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it is determined that the activation of commercial supremacy is important to restore the degenerating downtown of Asan; and that the analysis of user behavior and consumption expenditure is important for the activation of commercial supremac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47.7% of Asan citizens tend to go to Asan's downtown for daily shopping and cultural activities while 40.1% of them go to Cheonan-si, which is an adjacent city center.

Secondly, the main consumers of downtown Asan with high consumption expenditure are young men in their 30s and 40s whose occupations are government officials or professionals. In contrast, young women under 20s exhibit a relatively lower frequency and expenditure in downtown Asan.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fundamental consideration of the role of downtown Asan and its desirable urban city structure as the downtown's commercial supremacy is now shifting to its neighboring city - Cheonan-si. Second, considering that the main consumers of urban downtowns are young women, downtown Asan does not seem to attract the typical target audience that it is supposed to. Thus, setting the target audience of Asan's downtown commercial supremacy is very significant.

키 워 드: 원도심재생, 원도심, 상권, 이용자행태, 아산시

Key words: Downtown Restoration, Commercial Supremacy, User Behavior, Asan city

+ 본 논문은 충남연구원 2016년도 기본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공학박사.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5년 도농통합시로 출발한 아산시의 인구는 15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31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경제지표도 아산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¹⁾. 이러한 아산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도심(이하 원도심) 쇠퇴를 걱정하고 있으며²⁾, 자치단체 역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재생기반구축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³⁾

이처럼 아산시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시민의 요구도 높지만 한번 침체·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아산시는 대외적으로는 수도권과 대도시인 천안과 인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가 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으며⁴⁾, 대내적으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시가지로 상권이 이탈되고 있어 원도심 상권으로 시민의 발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⁵⁾ 이에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보

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그 중에 하나는 원도심의 대표기능인 상업기능의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산시 원도심⁶⁾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그 첫 단계는 시민들의 원도심 상권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원도심 상권 이용자의 속성 및 행태, 소비지출액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을 방문하고, 이들이 원도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댓가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원도심 상권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1998년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목표의 하나로 상권활성화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구체적인 평가지표로 보행자 통행량, 소매업 연간 판매액 등 상권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권활성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⁷⁾

2. 선행연구 검토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도시재생 정책 추진과 더불어 원도심 재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

1) 아산시의 경제규모는 충남 지역내 총생산의 27.8%(25조)를 점유하여 충남 최대도시인 천안(23조 원)보다도 많다(통계청 KOSIS 메타정보).

2) 임준홍 외(2015. 6)는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민의 73.4%가 원도심의 침체·쇠퇴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아산시는 급속한 도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였고, 최근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 등으로 원도심 재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 지역을 아산시로 선정하였다.

4) 김양중(2013)은 아산시의 연간 총소비지출액 24,651억 원 중 지역 내 소비는 53.9%이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서 소비되는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5) 온양 원도심은 과거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광객이 찾던 곳이지만 현재의 원도심 상권은 많이

침체·쇠퇴되었다. 실제 많은 아산시민들은 천안 상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원도심 상권지표도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피숍의 원도심 상권에서의 월 매출액은 699만원으로 유사상권(715만원), 인근주요상권(839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결과(2016.10.15.기준)).

6) 본 연구에서의 원도심이라 함은 아산시 동지역 중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밀집한 중심상업지역을 말한다.

7) 김주진(2015)은 일본의 정부가 승인한 107개 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의 측정 지표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통행량 증가를 설정한 곳이 105개 도시, 소매업 연간 판매액을 설정한 계획이 40개 도시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행되고 있다. 하지만 원도심의 핵심기능인 상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상업 및 상권의 경우 민간경쟁영역으로 간주하여, 정책적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상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개인적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상업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0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초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⁸⁾’을 통한 상권활성화이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상권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는 지고 있지만 원도심 상권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2000년 이후 발표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권 관련 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원도심 상권에 대한 연구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 상권의 특성 및 특성 상업가로에 대한 실증분석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상권활성화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김승희 외, 2013),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및 타운매니저 육성방안 연구(김영기, 2011, 김영기 외, 2004), 원도심 상권 살리기를 위한 상권활성화 제도의 초기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류태창 외, 2012)가 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정진호, 201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허자연, 2014)가 있다. 도심 내 특정 가로에 대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업종분석에 대한 연구(김세진, 2013), 지방도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테마상가재생기법에 관한 연구(정철모, 2010),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상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박승제, 2011)가 있다. 사례연구로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구도심 쇠퇴상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차호철 외, 2010),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증적으로 한 연구(김민영 외, 2007)가 있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상권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제 매출액을 이용한 상권분석은 아니지만 원도심 상권이용자의 행태를 통해 상권 특히, 소비지출액과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하나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라는 장점과 동시에 연구결과를 다른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도시단위의 실증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아산 원도심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15일부터 10일간 훈련된 전문조사원에 의해 조사된 설문조사자료이다. 설문조사는 원도심의 주요지점(전통시장, 상점가, 주요 광장 등)에서 이루어

8) 국내 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은 2011년 최초 7개의 시범사업 구역으로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부산 동구, 전북 군산이 선정되었으나 기반 인프라 사업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전북 군산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국 6개의 시범사업 구역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졌으며, 설문대상자의 추출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 특정지점을 지나가는 4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유효설문지는 384부였다.

설문조사항목은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원도심 상권 이용 행태에 관한 항목, 개인적 속성을 알 수 있는 항목 등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설문항목의 측정방법은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소비지출액은 양적척도(1회 방문시 총소비지출액을 천원 단위)로 조사하고, 개인적 속성과 원도심 이용자 행태 등의 항목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속성은 <표 1>과 같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중이고, 연령대는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82.8%가 기혼자, 직업은 회사원이 37.0%로 많았다. 생활하는 지역은 원도심과 인접한 동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이 54.9%로 가장 많았고,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많았으며, 소득은 200~400만원 정도가 많았다.

<표 1> 설문응답자의 속성

(총 응답자수 : 384명)

구 분		응답자수* (인)	비중 (%)	구 분		응답자수* (인)	비중 (%)
성별	남성	190	49.5	학력	고졸 이하	183	47.7
	여성	194	50.5		대졸 이상	201	52.3
연령대	20대 이하	38	9.9	소득 (만원)	200미만	80	20.8
	30대	115	29.9		200~300	117	30.5
	40대	116	30.2		300~400	104	27.1
	50대	75	19.5		400~500	53	13.8
	60대 이상	40	10.4		500 이상	30	7.8
결혼 여부	기혼	318	82.8	거주 기간	3년 이하	47	12.2
	미혼	66	17.2		3~5년	47	12.2
직업	공무원,전문직	74	19.3		5~10년	107	27.9
	회사원	142	37.0		10년 이상	183	47.7
	주부	96	25.0	주거 지 위치	동지역	211	54.9
	기타	33	8.6		읍지역	54	14.1
	자영업	39	10.2		면지역	119	31.0

* 구분별 총응답자수가 384명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설문항목에 미응답자(결측치)가 있기 때문이다.

2.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연구가설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가설의 설정은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 기초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적으로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1차적 연구가설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즉, 소비지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키워드)를 개인속성과 이용행태(특성)이라고 판단하여 “개인속성”, “이용자행태”, “소비지출액”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최종 7가지 가설을 선정하였다.

가설 1 : 개인속성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쇼핑 및 문화활동지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개인속성에 따라 원도심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개인속성에 따라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이용자행태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쇼핑 및 문화활동지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 이용자행태에 따라 원도심을 이용

하는 주요 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 이용자행태에 따라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 개인속성과 이용자행태가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액에 주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 1-6은 개인속성과 이용행태에 따른 쇼핑지역, 원도심 이용목적, 소비지출액의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탐색하기 위해서이며, 가설 7은 이러한 개인속성과 이용행태 변수들이 소비지출액이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가설의 통계적 검정방법은 개인속성이나 이용자행태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연구가설 1에서 6은 교차분석(Chi-Square)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이용하였고, 종합적인 분석 측면에서 개인속성과 이용자행태가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액과의 영향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가설 7의 검정을 위해서는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액을 종속변수로, 원도심 상권이용 만족도와 다양한 개인속성 및 이용행태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y_j = \alpha_0 + A_j\beta + C_j\gamma + \epsilon_j \dots\dots\dots \text{(식 1)}$$

여기서, 종속변수 y_j 는 응답자 j 가 원도심에서 소비지출액을 나타내며, A_j 는 원도심 상권을 이용하는 개인속성을, C_j 는 원도심을 이용하는 이용자행태를 나타내는 양적변수(또는 더미변수)이며, ϵ_j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III. 실증분석 : 연구가설의 검정

1. 개인속성에 따른 차이

1) 개인 속성에 따른 주로 이용하는 쇼핑 및 문화활동지역의 차이(가설 1)

아산 시민의 일상적인 쇼핑 문화활동지역은 아산 원도심이 47.7%, 인접한 대도시인 천안이 40.1%로 양분화 되어 있다. 아직 아산 도 시내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신개발지보다는 원도심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도심 상권이 약화는 되었지만 도시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인 이용자속성에 따른 주요 쇼핑 및 문화활동지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과 결혼여부, 학

<표 2> 시민의 주요 쇼핑 및 문화활동 지역
(단위 : %)

구 분		주요 쇼핑 및 문화활동 지역			Chi-Square (p value)
		아산원도심	신개발지	천안 등	
성별	남성	46.8	11.1	42.1	.604 (.739)
	여성	48.5	12.9	38.7	
연령 대	20대이하	28.9	2.6	68.4	57.940 (.000)
	30대	35.7	11.3	53.8	
	40대	44.8	16.4	38.8	
	50대	57.3	16.0	26.7	
	60대이상	90.0	2.5	7.5	
결혼	기혼	51.6	13.5	34.9	23.290 (.000)
	미혼	28.8	4.5	66.7	
직업	공무원	41.9	16.2	43.0	7.340 (.500)
	회사원	47.9	9.2	43.0	
	주부	46.9	15.6	37.5	
	기타	48.5	6.1	45.5	
	자영업	59.0	10.3	30.8	
학력	고졸 이하	55.7	9.3	35.0	9.420 (.009)
	대졸 이상	40.3	14.4	45.3	
소득 (만원)	200미만	72.5	2.5	25.0	63.272 (.000)
	200~300	60.7	6.0	33.3	
	300~400	34.6	19.2	46.2	
	400~500	22.6	22.6	54.7	
	500이상	20.0	16.7	63.3	
거주 기간	3년 이하	55.3	4.3	40.4	5.938 (.430)
	3~5년	46.8	14.9	38.3	
	5~10년	45.8	9.3	44.9	
	10년 이상	47.0	14.8	38.3	
주거 지	동지역	45.5	9.5	45.0	15.393 (.004)
	읍지역	50.0	25.9	24.1	
	면지역	50.4	10.1	39.5	

력, 소득 그리고 생활하는 주거지의 위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개인적 속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보면 젊은 층일수록, 미혼자일수록 아산 원도심을 이용하는 것보다 보다 큰 인접도시인 천안에서 쇼핑 및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아산 원도심보다는 천안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에 따라서도 원도심과 인접한 동지역 거주자는 오히려 천안시를 이용하는 반면 농촌지역의 성격이 강한 면지역 거주민은 아산 원도심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 속성에 따른 원도심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의 차이(가설 2)

시민들이 원도심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은 물품구매와 일상적인 쇼핑, 친구, 연인 등 지인과의 만남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와 지인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연구가설인 이용자 속성에 따른 원도심 방문의 주요 목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대별, 결혼여부, 직업, 소득의 차이에 따라 방문목적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 차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물품구매나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업무와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물품구매나 쇼핑이 많았고, 젊은 수록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혼 유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물품구매나 쇼핑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자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원도심을 방문하는 주 목적

(단위 : %)

구 분	원도심을 방문하는 주 목적					Chi-Square (p value)
	물품구입 및 쇼핑	업무	만남	여가문화		
성별	남성	56.8	15.3	21.1	6.8	11.624 (.009)
	여성	67.5	5.2	19.6	7.7	
연령 대	20대 이하	47.4	10.5	36.8	5.3	22.224 (.035)
	30대	60.9	10.4	20.9	7.8	
	40대	59.5	13.8	16.4	10.3	
	50대	70.7	9.3	13.3	6.7	
	60대 이상	72.5	0.0	27.5	0.0	
결혼 여부	기혼	65.4	8.8	18.6	7.2	9.139 (.027)
	미혼	47.0	16.7	28.8	7.6	
직업	공무원, 전문직	60.8	14.9	17.6	6.8	24.422 (.018)
	회사원	62.0	13.4	16.9	7.7	
	주부	66.7	0.0	24.0	9.4	
	기타	54.5	6.1	36.4	3.0	
	자영업	61.5	17.9	15.4	5.1	
학력	고졸 이하	62.8	7.7	22.4	7.1	2.952 (.399)
	대졸 이상	61.7	12.4	18.4	7.5	
소득 (만원)	200 미만	73.8	7.5	15.0	3.8	41.173 (.000)
	200~300	65.8	17.1	14.5	2.6	
	300~400	59.6	6.7	18.3	15.4	
	400~500	47.2	7.5	35.8	9.4	
	500 이상	53.3	6.7	36.7	3.3	
거주 기간	3년 이하	61.7	17.0	14.9	6.4	11.091 (.270)
	3~5년	53.2	19.1	21.3	6.4	
	5~10년	63.6	10.3	19.6	6.5	
	10년 이상	63.9	6.0	21.9	8.2	
주거 지	동지역	61.0	10.9	19.9	7.6	1.095 (.982)
	읍지역	64.8	11.1	18.5	5.6	
	면지역	62.2	8.4	21.8	7.6	

3) 개인속성에 따른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액 차이(가설 3)

시민이 원도심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4.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가설로 설정한 개인속성에 따라서 소비지출액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성별, 연령별, 직업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소비지출액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고,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주거지 위치는 읍지역 거주자가, 소득별로는 200-300만원과 500만원 이상소득자가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원도심 이용자의 1회 방문 소비지출액
(단위 : 만원)

구 분		서비스 지출비용	
		평균 소비지출액	F-value (p value)
성별	남성	5.37	8.757 (.003)
	여성	4.61	
연령대	20대 이하	3.39	17.340 (.000)
	30대	5.72	
	40대	5.78	
	50대	4.41	
	60대 이상	3.20	
결혼 여부	기혼	5.11	4.413 (.036)
	미혼	4.39	
직업	공무원, 전문직	6.00	10.867 (.000)
	회사원	5.39	
	주부	4.53	
	기타	3.09	
	자영업	4.33	
주거지 위치	동지역	4.98	.454 (.635)
	읍지역	5.28	
	면지역	4.88	
거주 기간	3년이하	5.38	7.885 (.000)
	3-5년	5.81	
	5-10년	5.54	
	10년 이상	4.36	
학력	고졸 이하	4.20	36.651 (.000)
	대졸 이상	5.71	
소득 (만원)	200 미만	3.74	8.488 (.000)
	200-300	5.77	
	300-400	4.96	
	400-500	4.94	
	500 이상	5.47	

2. 이용자행태에 따른 차이

1) 이용자행태에 따른 주로 이용하는 쇼핑 및 문화활동지역의 차이(가설 4)

연구가설인 아산 시민이 원도심을 이용하는 행태에 따라 주요 쇼핑 및 문화서비스의 활동 지역에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도심 이용회수가 많은 사람들은 주요 쇼핑 및 문화활동도 아산 원도심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이용자체가 낮은 사람은 쇼핑 및 문화활동도 천안 등 원도심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원도심 이용자행태와 주요 쇼핑 및 문화활동 지역

구 분		주요 쇼핑 및 문화활동 지역			Chi-Square (p value)
		아산 원도심	신 개발지	천안	
이용 회수	거의매일	73.3	0.0	26.7	31.285 (.000)
	일주일에2-3회	70.3	0.0	29.7	
	일주일에 1회	49.1	16.4	34.6	
	월 2-3회	41.9	16.4	34.6	
	월1회	7.7	7.7	84.6	
이용 시간	평일 낮	69.9	8.4	21.7	43.510 (.000)
	평일 저녁	33.6	13.6	52.8	
	주말 낮	53.2	17.4	29.4	
	주말 저녁	37.3	4.5	58.2	
접근 수단	도보	25.0	0.0	75.0	14.132 (.028)
	자전거	42.9	42.9	14.3	
	버스, 택시	56.5	7.4	36.1	
	자가용	44.5	13.2	42.3	
동행 자 유형	혼자서	80.0	6.7	13.3	20.780 (.008)
	친구	44.9	11.6	43.5	
	직장동료	57.1	3.6	39.3	
	연인	20.0	0.0	80.0	
	가족	43.7	14.9	41.4	

원도심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낮시간에는 아산 원도심을 이용하고, 밤에는 천안 등 다른 지역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산 원도심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주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에 비해, 천안 등 타지역의 경우 자가용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산 원도심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직장동료가 많았으며 연인과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천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이용자행태에 따른 원도심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의 차이(가설 5)

아산 시민이 원도심을 이용하는 행태에 따라 원도심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에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시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평일 낮과 주말 낮의 낮 시간대에는 물품구입과 쇼핑 목적이 많은 반면 저녁시간대에는 업무와 만남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직장동료와 함께 업무 목적으로 원도심의 장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의 만남의 장소, 연인과는 만남과 여가문화 활동의 장소로서 원도심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용자행태에 따른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액 차이(가설 6)

아산 시민이 원도심을 이용하는 행태에 따라 원도심에서 지출하는 소비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표 6> 원도심 이용자행태와 원도심을 방문하는 주 목적

구 분		원도심을 방문하는 주 목적				Chi-Square (p value)
		물품구입 및 쇼핑	업무	만남	여가문화	
이용 회수	거의매일	73.3	20.0	6.7	0.0	16.175 (.183)
	일주일에2-3회	67.6	8.1	10.8	13.5	
	일주일에 1회	65.4	6.9	21.4	6.3	
	월 2-3회	55.6	12.5	23.8	8.1	
	월1회	76.9	15.4	7.7	0.0	
이용 시간	평일 낮	71.1	7.2	16.9	4.8	21.196 (.012)
	평일 저녁	54.4	16.8	20.8	8.0	
	주말 낮	70.6	3.7	16.5	9.2	
	주말 저녁	52.2	11.9	29.9	6.0	
접근 수단	도보	50.0	25.0	25.0	0.0	12.078 (.209)
	자전거	57.1	0.0	14.3	28.6	
	버스, 택시	63.0	6.5	25.9	4.6	
	자가용	62.3	11.7	18.1	7.9	
동행자 유형	혼자서	73.3	10.0	13.3	3.3	37.842 (.000)
	친구	60.5	10.9	23.1	5.4	
	직장동료	50.0	39.3	7.1	3.6	
	연인	60.0	0.0	20.0	20.0	
	가족	63.8	5.2	21.3	9.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회수가 적을수록 1회 지출비용이 높았으며, 이용시간대별로는 낮보다는 밤 시간 이용자가, 평일보다는 주말 이용자의 소비지출액이 많았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원도심을 방문하는 사람의 소비지출액이 다른 집단보다 많았으며, 가족과 직장 등 업무상의 동료와 만남을 위해 원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1회 소비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원도심 이용자행태와 지출비용

구 분		원도심 1회 지출비용	
		평균	F-value (p value)
이용회수	거의매일	2.47	8.300 (.000)
	일주일에 2-3회	4.22	
	일주일에 1회	4.72	
	월 2-3회	5.65	
	월 1회	5.23	
이용시간	평일 낮	3.70	15.515 (.000)
	평일 저녁	5.06	
	주말 낮	5.03	
	주말 저녁	6.39	
접근 수단	도보	3.75	21.253 (.000)
	자전거	3.29	
	버스, 택시	3.56	
	자가용	5.63	
동행자 유형	혼자서	3.83	3.192 (.013)
	친구	4.71	
	직장동료	5.61	
	연인	5.20	
	가족	5.32	

3. 개인속성 · 이용자행태가 원도심에서의 소비지출액에 주는 영향(가설 7)

전술한 바와 같이 원도심을 이용하는 개인 속성이나 이용자행태에 따라 주요 쇼핑장소와 원도심을 이용하는 목적과 원도심 이용시 소비지출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많은 항목

에서 집단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실제 소비지출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술한 <식 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제1모형은 개인속성이 소비지출액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고, 제2모형은 개인속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행태도 함께 고려한 분석모형이다.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소비지출액(천원)을, 독립변수들은 개인속성과 이용자행태에 관한 더미변수들이다.⁹⁾ 분석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1인 개인속성에 따라서는 연령과 직업, 소득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가 많은 영향을 주고, 직업별로는 다른 집단의 회귀계수 값이 (-)인 것으로 보아 기준 집단인 공무원과 전문직이 소비지출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별로는 200-300만원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개인속성에 따라서는 모형1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용행태에 따라서는 이용횟수와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회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액에 (-)영향을 주고, 주말저녁 이용자들이 소비지출액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 독립변수들은 모두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이유는 설문조사 항목이 질적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일부 척도(연령, 거주기간 등)는 양적척도로 조사되었지만 양적척도로 투입한 것 보다 질적척도로 투입한 모형보다 통계량 값이 유의하였기 때문이다.

〈표 8〉 원도심 서비스이용 지출비용에 주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 개인속성과 이용자행태(명목척도)		종속변수 : 1회 방문시 소비지출액(양적 척도)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성별(남성)	여성	-0.479	(-1.61)	-0.266	(-0.94)
연령 (20대 이하)	30대	1.757**	(4.02)	1.093*	(2.21)
	40대	1.919**	(3.83)	1.408*	(2.54)
	50대	1.114*	(2.19)	0.732	(1.34)
	60대 이상	0.437	(0.76)	0.192	(0.31)
직업 (공무원, 전문직)	회사원	-0.180	(-0.49)	-0.000	(-0.00)
	주부	-0.444	(-0.97)	-0.212	(-0.48)
	기타	-0.982*	(-1.99)	-0.600	(-1.21)
	자영업	-0.842+	(-1.76)	-0.757+	(-1.69)
학력(고졸 이하)	대졸 이상	0.246	(0.81)	0.085	(0.30)
소득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1.261**	(3.51)	1.015**	(2.96)
	300-400만원	0.558	(1.58)	0.237	(0.65)
	400-500만원	0.366	(0.93)	-0.013	(-0.03)
	500만원 이상	0.638	(1.28)	0.298	(0.61)
결혼유무(기혼)	미혼	-0.184	(-0.39)	-0.107	(-0.21)
거주기간 (3년 이하)	3-5년	0.224	(0.41)	0.466	(0.82)
	5-10년	0.134	(0.30)	0.361	(0.80)
	10년이상	-0.562	(-1.35)	-0.299	(-0.71)
주거지 위치 (동지역)	읍지역	0.075	(0.17)	-0.094	(-0.23)
	면지역	0.019	(0.08)	-0.128	(-0.53)
이용 회수 (거의 매일)	주 2-3회			1.718**	(3.10)
	주 1회			1.776**	(3.07)
	월 2-3회			2.305**	(4.22)
	월 1회			2.035*	(2.37)
주 이용 시간대 (평일 낮)	평일 저녁			0.112	(0.24)
	주말 낮			0.475	(1.00)
	주말 저녁			1.422*	(2.52)
접근 수단 (도보)	자전거			-0.832	(-1.13)
	버스, 택시			-0.128	(-0.20)
	자가용			0.687	(1.11)
동행자 유형 (혼자서)	친구			-0.356	(-0.82)
	직장동료			0.049	(0.08)
	연인			-0.163	(-0.11)
	가족			-0.436	(-0.88)
Constant		3.664**	(5.00)	1.567	(1.48)
관측수		384		384	
Adjusted R-squared R2		0.2082		0.2778	

주 :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 ”는 터미변수의 기준변수임.

I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 중요한 것이 상권 활성화이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는 원도심 상권 이용자의 행태(특성)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이들이 원도심 상권에서 보다 많은 소비지출액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해서는 원도심 상권 이용자의 개인적속성과 이용자행태 그리고 소비지출액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졌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산 시민의 일상적인 쇼핑 문화활동에 있어 원도심을 이용하는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지만 인접 대도시인 천안시의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도 40.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산시의 입지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도시성장과정에서 원도심 상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고, 온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구조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을 반증한다. 이에,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를 위해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을 위한 사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도심 상권의 이용자행태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전문직 집단, 30대와 40대의 남성들이 가장 빈번히 방문하고 있는 반면, 흔히 알고 있는 원도심 상권의 주이용자인 2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의 이용빈도는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원도심에서 지출하는 소비자의 소비지출액의 영향구조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30-40대와 젊은 공무원, 전문직 집단, 200-300만원 월소득자들이 소비지출액 증감에 주는 영향을 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과 고소득자의 소비지

출액이 적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원도심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20대와 젊은 여성들이 아산 원도심 상권을 외면함에 따라 원도심 상권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지금 단계에서 원도심 상권을 주요 타겟을 어떤 계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정이 요구된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원도심 상권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인접한 대도시인 천안시로 이탈되는 현실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산과 천안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많은 시민들은 가상의 경계선인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효용극대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시행정과 시민친화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고, 인접도시와 연계한 협력적 지역정책 추진과 광역적 공간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아산시 원도심의 역할과 발전방향 설정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산 원도심 방문자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실증연구로서, 타도시의 적용 등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권활성화 연구의 경우 해당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실증연구도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민영·윤영선(2007), 중소도시 지역상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전북 군산시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22(3), pp.31-56.
2. 김세진·김태영(2013), 청주 성안길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업종모색, 대한건축학회 학술발

- 표대회 논문집 제33권 제2호, pp.113-114.
3. 김승희·김영기(2013), 지역상권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유통과학회, 11(5), pp.55-62.
4. 김승희·김범수(2013), 지방중소도시의 도심 상권쇠퇴와 도시재생 방향에 관한 연구: 강원도 춘천시 도심 상권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1(2), pp.169-188.
5. 김양중(2013), 충청남도 소비의 선순환이 필요하다-아산시 가구소비를 중심으로-, 충남리포트 제92호, 충남발전연구원
6. 김영기(201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타운 매니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9(2), pp.27~41.
7. 김영기·김승희·남윤형(2004), 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7(1), pp.45~60.
8. 김영기·김승희(2010),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조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8(2), pp.37~53.
9. 김주진·황규홍·임주호·류동주(201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10. 류태창·최봉문(2012), 원도심 상권 살리기를 위한 상권활성화 제도의 초기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 : 지역전문가와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4(6), pp.105-124.
11. 박승제(2011),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상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과학회, 9(4), pp.93-102.
12. 임준홍·송두범·권용일(2015), 아산시 원도심의 실태와 쇠퇴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시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2), pp.249-266.
13. 정진호·윤두원·성순아·황희연(2015),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효과 분석 : 청주시 중앙동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9(1), pp.15-25.
14. 정철모(2010), 지방도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테마상가재생기법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3(3), pp.167-192.
15. 차호철·박철민(2010), 구도심 쇠퇴상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시 일도1동 신흥로와 칠성로 인근 블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1), pp.59-72.
16. 허자연·정연주·정창무(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18(4), pp.517-534.
17. 아산시, (1995), (2015), 통계연보.
18. www.kosis.kr/(2015. 2).
19. sg.sbiz.or.kr/(2016. 10).